

# 選擇性 消費支出의 變動을 통한 消費「패턴」考察

## An Analysis of Discretionary Consumption Expenditure

인천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강 이 주**

*Dept. of Home Management In Chon College*

Instructor; **Ree Ju Kong**

### < 목 차 >

I. 序論	IV. 結果
II. 理論의 背景	V. 結論 및 提言
III. 研究資料 및 分析方法	參考文獻

### < Abstract >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hange of the proportion of discretionary consumption expenditure (DCE) of main consumer goods among total household expenditure from 1964 to 1986 in Korea by reorganizing various data, particularly "Annual Report of Citizen's Household Expenditure in Seoul".

The result of the author's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analysis shows that while the proportion of DCE in food has been increased during this period as the Korean economy developed, the value of income elasticity for beverages, liquor, out-door eating and processed food products which consist of major part of food, has been successively decreased.

And also, though the absolute value of income elasticity for grain products has been increased, its proportion among total expenditure has been successively decreased. From these trends, we can conclude that general consumption pattern has a tendency to change from dependence on main grain products to the more utilization of out-door eating or processed food products.

2. The ratio of DEC of furnitures to housing expenditure has played a role of indicator of business cycle, reflecting the consumers' psychological expectation for general economic trend.

3. In case of the proportion of DCE of clothes, there has been no great change.

4. As for as DCE of sundry expenditure is concerned, there has been no-great change in

the proportion itself. However, as the ratio of sundry expenditure to total household expenditure has been greatly increased, expenditure for leisure disproportionately increased.

5. The proportion of total DCE in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as in the case of housing, has been increased, which coincided exactly with business cycle appeared during this period. In fact, when Korea economy experienced a severe recession in 1973 and 1980, that proportion deeply went down respectively, and again went up after those years. Accordingly, we can generalize that the size of DCE depends on the formation of consumer's psychological expectation toward economy, which confirms George Katona's early proposition.

## I. 序 論

家計調査 結果를 기초로 한 消費需要分析은 19<sup>세</sup> 중엽 Engel의 법칙이 알려진 이후 W.S. Jevons와 K. Menger (1971), L. Walras (1874) 등에 의해서 選好理論의 기초가 만들어졌으며<sup>1)</sup> 금세기에 들어와 J.R. Hicks (1946), P.A. Samuelson (1947), G. Debreu (1973) 등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精緻化되었다<sup>2)</sup>.

우리나라에서도 國民所得統計資料와 실증분석을 통한 소비수요함수의 추정과 가계소비「패턴」에 관한 연구들이 여러 연구기관과 학자들에 의하여 수차 수행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그 성격을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巨視的 消費函數를 도출하여 수요정책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家計의 生計費와 그 費目 간의 크기 등을 縱的, 橫的으로 분석함으로써 일반가계의 소비「패턴」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G. Katona (1975)는 이상의 방법에 덧붙여 경제행위의 분석에서 心理學的 要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국민소득이 증대하고 풍요를 누리는 인구의 범위가 확대되면 가계의 지출율과 소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選擇性 消費支出(discretionary expenditure)의 動向에 달려있다”고 하였다<sup>3)</sup>.

選擇性消費支出이란 습관적이 아니며 일정한 시점에서 꼭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간의 심리적 요인과 깊은 관련을 맺고있다.

經濟的 行爲는 인간행동의 표출이며, 인간의 행위는 價値觀 즉 心理的 要因에 지배받게된다. 그러므로 所得과 總體의 生計費支出의 크기 비교만으로는 오늘날과 같은 進歩된 産業社會의 消費性向을 理解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여러가지 經濟指標 및 社會指標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量的 증대와 더불어 質的으로도 많이 향상되었다.

약 20년간 Engel 계수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sup>4)</sup>은 기초생계비 이외의 지출비율이 크게 증대되었음을 示唆하고있다.

이에 本 研究者는 그간의 經濟發達로 인하여 選擇性消費支出의 크기가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가에 관심을 두고 이러한 지출의 特性과 그것이 消費「패턴」의 形成에 미치는 영향을 紮明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선택성 소비지출이 가능한 소득계층이 확산될 경우 이러한 지출은 소비활동의 規範的 側面과도 깊은 관련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本 研究는 消費의 心理的-社會, 文化的 側面을 이해하기 위한 探索的 研究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 II. 理論的 考察

### 1. 選擇性消費支出(discretionary expenditure)의 特性

G. Katona(1975)는 2차 대전 후 1946~73년 까지의 미국경제에 대한 문헌과 parel study를 통해서 다음 세가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소득분포 상 기초생계비 이외의 지출이 가능한 계층의 비율증대.

둘째, 소비활동에서 소비자의 자유재량적 선택범위의 확대.

셋째, 경제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영향력 증대.

이상의 현상이 나타난 배경을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속적인 經濟成長과 技術의 發展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대되었고 또한 財貨의 耐久性이 좋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여유성 자금을 무엇에 대하여 소비하며 어떻게 저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는 그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耐久消費財에 대한 沒入~愛着이 증대하게 되었다.

19<sup>60</sup>에는 기업의 資本財에 대한 지출이 경기변동의 主要素였으나 금세기 초반부터는 주택을 포함한 耐久用 消費財에 대한 소비자지출이 앞의 것들보다 더 크게 증대되었다. 耐久消費財에 대한 消費者支出은 그들의 전체수입에 비해서는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절대량과 기타지출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평강히 늘어났다. 이와같은 기초생계비 이외의 지출규모의 증대가 풍요한 사회의 景氣變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출을 選擇性消費支出(discretionary expenditure)이라하고 그 특성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주어진 시점에서 억지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

둘째, 습관에 의해서 지배받지않은 경우가 많다.

셋째, 순간적으로 보다는 신중한 의사결정에 의해

서 이루어진다<sup>5)</sup>.

이러한 特性에 비추어볼 때 選擇性消費支出은 購買狀況과 購買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購買에 대한 자극과 반응 간에 구매자의 經驗, 人性, 所屬感, 등의 心理的, 媒介變因들이 고려될 수 있다.

### 2. 消費「패턴」의 定義 및 社會的 性格

문헌 상으로 나타난 소비「패턴」(consumption pattern)의 概念은 다음 세가지 次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消費者 單位가 일용품의 선택과 관련하여 '지출과 예산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자할 때 주로 經濟學과 消費者 經濟學에서 活用된 개념으로 Webster (1974)가 이를 간결하게 定義하고있다.

“소비「패턴」이란 각각 相異한 消費範疇간에 할당되는 消費者單位의 지출예산이다<sup>6)</sup>.

이 定義는 家計調查研究를 통하여 Engel의 법칙이 확인된 이후 많은 임상적 연구에서 活用되어왔다.

둘째, 마케팅(merketing) 문헌에서 발견되는 개념으로 Robertson (1970), Tucker (1964)등이 商標選擇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들은 소비「패턴」을 “동일한 소비범주 내에서 발생하는 財貨選擇의 差異”로 간주하였다<sup>7)</sup>.

셋째, 사회적 마케팅의 입장에서 Firat와 Dholakia (1977)들이 제시한 것으로서 “소비「패턴」은 소비자단위가 소비활동을 할 때 消費客體인 재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社會關係의 次元과 그 때 수반되는 人的 活動의 크기와 그 재화의 消費共有범위에서 형성되는 복합적 관계(relationships)의 양상이다”라고 定義하고 이 소비「패턴」形成의 媒介變數를 欲求라고 하였다.

Firat등이 제시하는 소비범주 간의 세가지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 1) 社會的 關係의 側面

사회적 관계의 측면은 소비단위가 소비를 행하는 동안에 연루되는 사회관계의 범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는 個別的 消費(individual consumption)와 群集的 消費(collective consumption)로 구분된다.

개별적 소비는 소비의 主體가 하나의 독립된 消費單位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群集의 消費는 둘 이상의 消費主體가 상호 간에 어떤 社會的 關係를 갖거나 組織體를 구성하는 경우 또는 共同所有등의 관계를 갖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가정이 소유하는 승용차, T.V. 세탁기, 냉장고등은 개별적 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둘 이상의 가정이 자동차를 빌려서 여행을 떠나는 경우, 두 가정 간에 공동 소비라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므로 群集의 消費라고 할 수 있다.

## 2) 財貨의 活用可能범위의 側面

이것은 한 사회의 구성원 간에 日用財貨가 共有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즉 단 하나의 消費單位만이 소비 할 수 있는 경우를 私的 消費(private consumption)라 하고 多數의 소비자가 그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때를 公的 消費(public consumption)라고 한다.

공중전화의 경우 이용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므로 公적 消費에 해당되지만 가정용 전화는 사용자가 가족에 한정되므로 私的 消費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중전화의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公的 消費에 해당되지만 통화기간 중에는 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밖에없다. 그러므로 공중전화는 個別的인 동시에 公的으로 消費되는 日用品이다.

## 3) 人間關係의 側面

消費過程에서 人間的 要素와 인간의 활동정도가 어느 정도 관련되는가에 관한 것으로, 소비 時에 인간의 활동을 비교적 많이 필요로 하는 소비를 能動的 消費(active consumption)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受動的 消費(passive consumption)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운동경기에 직접 참여하거나 손으로 세탁을 하는 것 그리고 직접 요리를 하는 것 등은 能動的 消費에 해당되고,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것 세탁기를 이용하는 것 등은 受動的 消費에 해당된다.

Firat는, 위 세가지 소비범주 간의 관계를 현대사회의 소비「패턴」에 적용시켰을때 소비가 점차 個別的(individual), 私的(private), 受動的(passive) 消費-I.P.P.C-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였다<sup>8)</sup>.

지금까지 소비「패턴」에 대하여 경제학에서 활용된 개념, 마케팅에서 활용된 개념 그리고 社會의 마케팅에서 Firat들이 제시하는 개념등 세가지를 정리하였다.

이 가운데 첫번째와 두번째의 개념은, 欲求의 源泉을 生得的인 것으로 보고 消費選擇의 결과로 나타난 支出의 크기로 소비「패턴」을 규명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개념은 서로 補完的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消費者單位가 선택하는 財貨群이 지니고 있는 상품의 種類, 量, 質, 價格등의 차이는 지출예산에서 지불하게될 각 범주의 할당액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번째의 개념은 消費行爲에 의해서 形成되는 소비「패턴」을 社會的 現象으로 把握하려는 것이다. 즉 현대사회의 소비「패턴」은 이미 주어진 욕구의 결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現代産業社會의 特性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된다는 입장이다.

Firat와 Dohlakia이외에도 소비가 사회적 현상의 일환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학자들을 들 수 있다.

Luthans (1985)는 消費要求의 源泉을 本能的인 것과 社會, 文化的 環境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나누고, 현대사회에서는 욕구원천의 대부분이 社會, 經濟, 文化的 過程에 의하여 창출되는 社會性을 띤 것이라 하였다<sup>9)</sup>.

Galbratith(1969)는 현대사회에서 消費者 欲求認知的 대부분은 그 사회의 生産組織의 영향이라하였다. 그는 經濟行爲의 構成集團을 生産者와 消費者의 양대 집단으로 나누고 생산자의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소비자 집단을 모두 동일시하여 소비자 집단 내의 高所得者와 低所得者 간의 社會, 經濟的 差異에서 발생하는 영향력의 크기는 다소 간과하였다<sup>10)</sup>.

Tucker(1964)는 社會, 文化的 「시스템」의 결과로 고소득층에서부터 어떤 새로운 소비「패턴」이 형성되어 저소득층으로 확산된다고 하였다<sup>11)</sup>.

Nicosia(1976)는 文化的 價値, 社會의 여러가지 制度(institution)와 그들에서 발생하는 規範들이 消費活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다<sup>12)</sup>.

이와같이 消費를 社會的 現象으로 파악하는 데 多

數의 학자들이 同意하고 있을 뿐 아니라 欲求를 生得的인 것으로 看做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假定으로 판단되어 本 研究者는 소비「패턴」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자한다.

“소비「패턴」이란 文化的 價値, 制度, 規範등에 의해서 財貨의 活用時 전개되는 복합적 관계의 樣相이다”.

以上の 理論에 근거하여 都市家計年報(1964~1986)와 國民所得計定<sup>1)</sup>등을 중심으로 ‘選擇性消費支出의 크기가 經濟發展과 더불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고, 그것을 통하여 Firat가 제시한 個別的, 私的, 受動的 소비패턴의 현상이 입증되고 있는가를 다음 장에서 고찰해 보고자한다.

### III. 研究資料 및 分析方法

본 연구의 調査道具는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에서 발행한 1964년부터 1986년까지의 都市家計年報 가운데 서울의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 부분을 研究目的에 합당하게 財構成한 것이다.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 자료 중 서울의 것을 도구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부분에서 밝힌 바와 같이, 選擇性消費支出이 경제의 발전으로인한 기초생계비 이외의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성은 서울의 소비지출에서 그 변화양상이 선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둘째, Galbraith(1969)와 Turcker(1964)등 다수의 학자가 주장한 바 高所得層의 「달러보우팅」(dollar voting)에 힘입어 어떤 새로운 소비「패턴」이 형성되어 확산되면 그것이 곧 그 사회의 지배적인 소비「패턴」이 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그 인구의 규모 면에서나 政治, 經濟, 社會, 文化的인 면에서 서울의 消費支出은 한국의 지배적인 소비「패턴」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자료를 재구성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G. Katona의 選擇性消費支出에 대한 定義를 기준으로 소비지출비목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을

〈표 1〉 소비지출비목 중 선택성 소비지출 영역

	선택성 소비지출 영역
식품비	청량음료, 주류, 외식, 가공식품
주거비	가구 및 집기류(내구소비재)
피복비	장신구
잡 비	취미, 오락

각 지출영역마다 발체하였다. 소비지출비목 중 選擇性 지출영역에 속하는 것들은〈표-1〉과 같다. 5대 지출비목 중 광열비는 選擇性 支出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1964에서 1981년 까지 도시가계연보의 家計支出 비목은 식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로 대별되어 있고, 잡비에 의료, 미용위생, 교통통신, 취미오락, 교육독서, 연초, 기타잡비 등이 포함되어있었다. 1982년 이후부터는 지출비목의 분류방식이 식품비와 피복비, 잡비의 구성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식품비를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 과일, 유지 및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음료, 외식, 식품서비스 등으로 대별한 점은 비슷하나 가공식품 부분이 제외되어 있었다. 잡비에 속해있던 보건의료, 교양오락, 문방구, 교통통신 등을 독립된 비목으로 설정하였고 잡비의 구성은 대폭축소되어 담배, 이미용, 장신구, 잡비로 되어있었다. 또한 피복비에 속했던 장신구비가 잡비영역으로 이전되어있었다.

1982년 이후의 분류방식이 보다 合理的 方法으로 판단되었으나 통일된 분석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식에 맞추는 것이 작업 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되었다. 따라서 가공식품비는 식품비의 각 하위영역 중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것(예: 육류-소시지)들을 선별하여 그 지출을 합산하였다.

잡비는 별개의 비목으로 되어있는 의료 미용위생, 교통통신, 교육독서, 취미오락, 기타소비지출등을 합한 후 현재 잡비에 속해있는 장신구 비용을 뺀 것을 總 雜誌로 看做한 후 그중 취미오락비를 산출, 비교하였다.

피복비에 속해있던 장신구비가 새 분류법에는 잡

비영역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장신구비를 다시 더하여 總被服費로 삼았다.

식품비 가운데 加工食品費는 選擇性 消費支出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품목도 일부 있었으나 이를 굳이 따로 산정한 것은 家事勞動의 商品化와 함께 Firat가 제시한 消費活動에서의 人的 參與가 감소하여 受動的 消費「패턴」의 경향이 증가한다는 주장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피복비 가운데 직물류의 비율을 살펴본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이다. 직물류의 소비가 감소한다면 가정에서 의복제작 활동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IV. 結 果

##### 1. 食料品費 內의 選擇性消費支出의 構成費 變化

<표 2>와 <표 3>을 살펴보면 Engel계수는 1964년 56.2%에서 1986년 34.3%로 년 평균 약 1%씩 감소하여왔다.

이에 반하여 식품비 내의 選擇性 消費支出의 構成費는 1964년 5.42%에서 1986년 23.97%로 년 평균 0.84%씩 해마다 증가하여왔다.

김 미향(1988)의 연구에서도 식품비 내의 主食의

〈표 2〉 각 소비지출 비목에 대한 선택성 소비지출의 구성비와 Engel 계수

년도	총 D.E.	D.E.	D.E.	D.E.	D.E.	잡비총액 총소비지출액	외식+가공식품	직물류 피복비	Engel 계 수
	총소비지출액	식품비	주거비	피복비	잡비		식품비		
64	5.11	5.42	6.56	12.31	3.35	14.47	3.43	7.31	56.19
65	6.35	5.88	6.88	12.12	8.22	19.31	4.03	—	52.47
66	6.83	6.68	7.00	13.45	6.55	22.20	4.17	—	58.00
67	8.99	7.47	7.60	12.90	7.45	25.39	4.44	—	52.05
68	8.26	8.60	12.62	6.99	6.79	25.65	4.50	6.55	41.49
69	10.26	10.66	17.55	8.05	7.12	26.98	5.03	—	38.21
70	10.90	11.25	18.99	9.85	7.17	27.87	5.77	5.79	38.42
71	10.20	12.95	13.40	7.47	6.89	26.96	6.68	3.11	39.75
72	9.46	12.91	10.70	7.27	5.96	27.89	6.27	5.28	38.40
73	8.94	13.95	6.46	8.22	5.27	26.90	7.36	8.81	39.06
74	10.28	14.24	11.97	7.05	5.22	24.29	7.68	3.64	43.22
75	11.41	12.44	20.64	8.57	6.34	24.98	5.66	7.68	43.63
76	10.73	12.50	17.31	9.40	5.31	25.24	5.85	7.37	43.11
77	12.63	15.13	17.86	10.09	6.74	22.67	7.02	6.42	40.73
78	14.40	16.30	22.83	10.32	7.37	23.30	7.15	6.49	38.29
79	13.54	17.68	17.57	11.17	7.11	24.68	7.53	6.79	34.54
80	11.82	17.43	12.52	9.79	6.79	24.18	7.70	5.61	33.92
81	12.29	17.40	14.67	11.34	6.41	25.07	7.96	4.95	33.76
82	16.52	19.67	16.25	9.55	11.09	32.49	9.24	3.94	38.46
83	17.75	21.12	22.29	10.11	10.97	35.59	10.55	3.63	37.47
84	17.39	21.87	23.25	8.64	9.86	38.04	10.97	3.45	36.38
85	18.04	23.88	29.66	10.09	8.34	41.58	13.26	3.31	35.54
86	18.14	23.97	31.10	9.01	9.20	40.20	13.27	2.47	34.29

D.E. : Discretionary Expenditure의 略字임.

각각의 D.E.는 그 비목에 해당되는 선택성 소비지출을 가리킴.

—표는 도시가계연보에서 통계치가 누락된 것임.

〈표 3〉 주곡 및 선택성 소비지출 품목의 소득 탄력성 계수

지출품목	년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미곡		0.577	0.563	0.497	0.546	0.515	0.520	0.528	0.576	0.708	0.789	0.794	0.788	0.889	1.001
빵		1.415	1.208	1.181	1.265	1.115	1.199	1.148	0.985	0.975	0.928	0.884	0.892	0.835	0.772
가공식품		0.935	0.958	1.092	0.948	0.941	1.065	1.021	1.056	1.091	1.212	1.191	1.157	0.993	0.881
청량음료		4.028	3.017	3.312	3.102	3.416	2.465	2.079	1.620	1.284	1.162	1.249	1.292	1.305	1.310
외식		1.146	1.092	1.189	0.977	0.729	1.057	1.050	0.748	0.725	0.648	0.641	0.593	0.423	0.398
T, V 라디오		0.334	0.397	0.331	0.523	0.471	0.234	0.212	0.199	0.206	0.268	0.383	0.220	0.274	0.263
전동기구		1.747	1.842	2.879	1.529	0.646	0.358	0.514	0.342	0.136	0.161	0.286	0.354	0.428	0.362
가구		0.207	0.315	0.272	0.335	0.304	0.163	0.152	0.167	0.135	0.125	0.160	0.171	0.192	0.178
장신구		0.494	0.413	0.679	0.601	0.678	0.524	0.475	0.425	0.352	0.321	0.379	0.404	0.492	0.461
교양오락품		1.154	1.223	1.498	1.379	1.355	1.026	1.383	1.167	0.994	0.945	1.009	0.974	1.010	1.075
기타 교양오락비		6.644	6.358	7.292	6.680	7.816	4.877	5.410	4.578	3.882	3.632	3.957	4.391	1.051	0.855

자료 : 우리나라의 消費選好變化에 관한 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86.

構成比가 1975년 48.3%에서 1985년 28.5%로 감소하였고, 기호식품과 外食費의 지출비율이 해마다 거의 규칙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sup>14)</sup>.

이는 所得의 上昇으로 인한 총 소비지출에 대한 식

품비의 감소현상과 함께 식품비의 소비지출「패턴」이 크게 바뀌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흔히 주곡을 비롯한 生活必需品은 비탄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財貨들의 代替財가 별로 없음이 그 원인

〈표 4〉 가계 최종 소비지출 및 내구재와 서비스 지출액

1980년 불변가격

(단위 : Billion Won)

년 도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가계 최종 소비지출
70	126.6	1377.6	7862.5	3194.3	12542.1
71	153.5	1636.0	8384.0	3514.7	13609.6
72	180.5	1741.2	8833.0	3731.4	14396.1
73	225.0	2054.0	9611.3	4188.0	15718.4
74	260.1	2192.7	10219.3	4416.4	16916.6
75	288.3	2402.8	10630.6	4679.1	17864.9
76	376.9	2704.7	11522.6	5013.1	19385.1
77	459.0	2945.8	12079.5	5473.4	20678.3
78	708.6	3458.1	12837.2	5908.8	22673.6
79	873.5	3423.6	14053.6	6458.9	24720.8
80	714.3	3323.3	13933.2	6686.5	24542.5
81	912.4	3285.8	14238.6	7010.2	25352.9
82	972.0	3213.2	14795.1	7641.8	26575.7
83	1227.8	3435.5	15689.6	8303.8	28539.8
84	1468.0	3568.1	16284.2	9031.3	30213.6
85	1467.2	3675.0	16982.2	9746.1	31676.3
86	1842.8	3948.4	18126.1	10392.9	33657.8

자료 : 國民所得計定(1987).

이 될 수 있는 것이다<sup>15)</sup>. <표 4>에 의하면 所得彈力性 計數가 곡류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데 반하여 빵, 음료, 외식 등의 비목은 일정하게 감소하고있다. 이는 곡류의 代替財로 빵종류, 加工食品, 外食등이 작용하고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들의 지출비율이 安定化되어있어 變化된 食生活樣式이 固定化되었음을 示唆하고있다. 특히 청량음료의 탄력성 계수는 1970년 4.028에서 1983년 1.310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1977년 이후는 계수의 변동이 크지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량음료는 선택성 영역에서 필수품 영역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食文化의 입장에서 새로운 考察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려된다. (그림 1)은 식생활에서 선택성 소비지출(청량음료, 주류, 외식, 가공식품)의 구성비율 나타낸 것이다.

1975년과 1976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거의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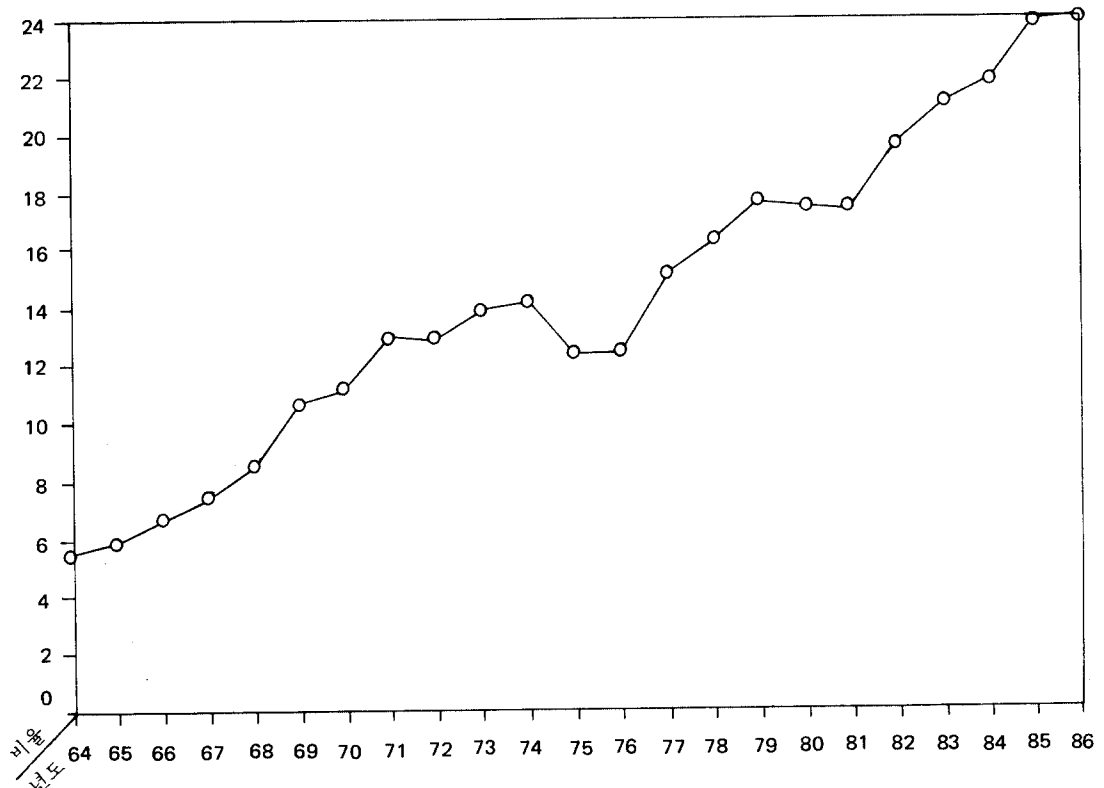
하게 安定的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食生活에서 家事勞働量이 줄어드는 대신 줄어든 勞働量이 市場에서 財貨로 代替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家事勞働의 商品代替에 관한 李基榮(1987)의 研究結果<sup>16)</sup>를 다른 측면에서 지지하고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住居費 內의 選擇性 消費支出의 構成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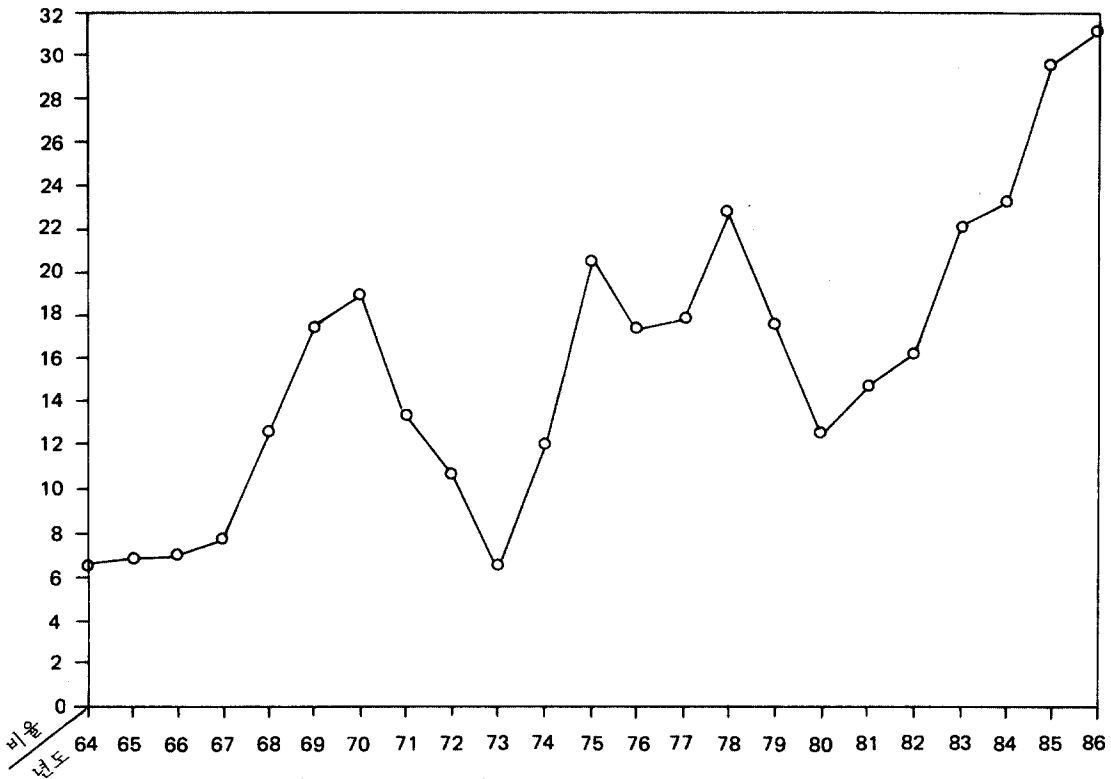
住居費 가운데 選擇性 消費를 이루는 품목은 주로 家事用 耐久消費財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家具와 家電製品이 주류를 이루므로 G. Katona의 선택성 소비지출의 정의와 일치하는 품목으로 구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주거비에 대한 가구 및 집기류의 構成比가 전체적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림-1) 식품비내의 선택성 소비지출의 구성비 변화





(그림-2) 주거비내의 선택성 소비지출의 구성비 변화

1973년과 1980년에는 구성비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표 3>에서 T.V의 소득탄력성 계수가 1973년과 1980년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5>에 의해서 작성된 (그림 3)의 家事用 耐久消費財의 소비증가율 역시 1980년대 크게 감소되었다가 다시 증가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1973년과 1979년 말의 1, 2차 油類波動이 전체 경제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기대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에 실질적 景氣後退 이상으로 가구 및 집기류의 기출을 줄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 상황이 예견될 때(1966~70, 74~80, 82~86)에는 실질성장을 이상으로 지출비율이 증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구 및 집기류의 支出變動은 경제에 대한 心理的 期待值을 반영하는 指標의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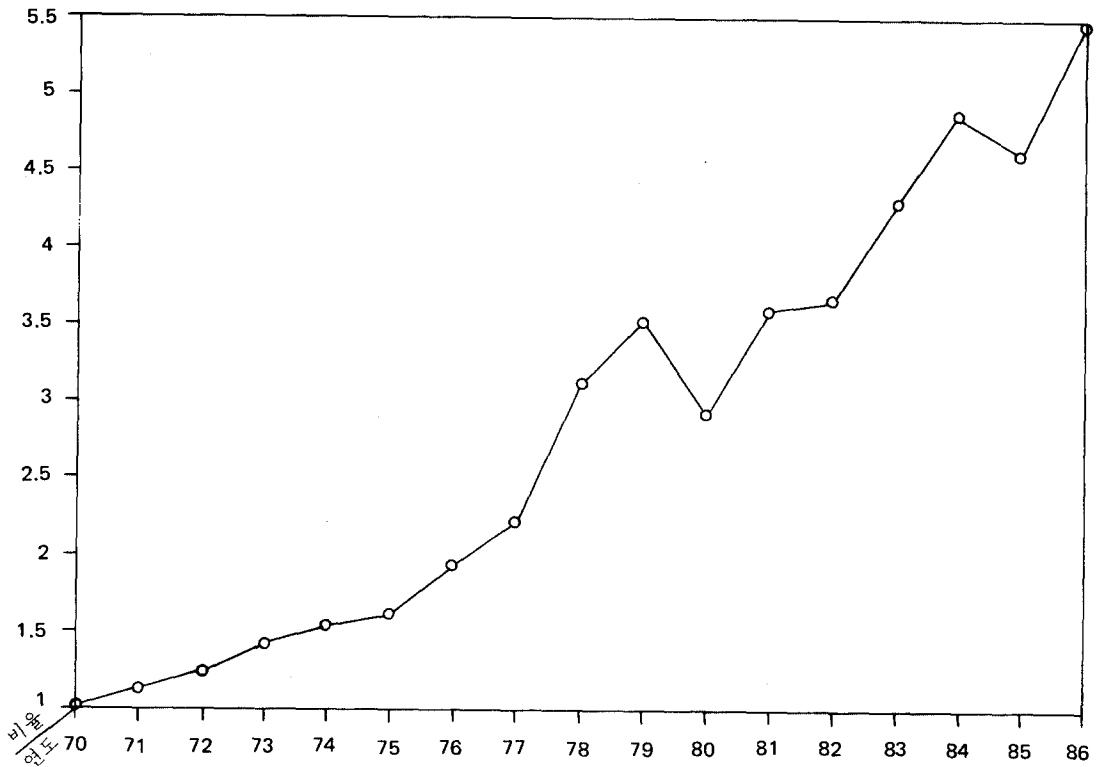
### 3. 被服費 內의 選擇性 消費支出 變化

피복비 가운데 選擇性 消費支出을 이루는 비목으로는 일부의 겹옷이나 구두등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이를 2차 資料에서 구분하기는 매우 모호한 점이 있어 편의 상 裝身具費만을 고찰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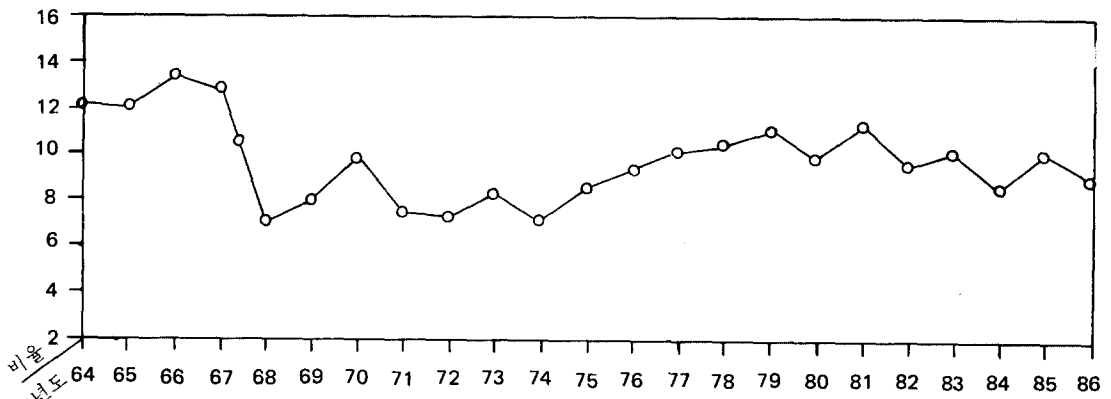
<표 2>과 (그림 4)를 보면 피복비에 대한 장신구의 構成比는 약간의 變動은 있으나 1968년 이후부터는 거의 큰 變化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4>의 所得彈性值 역시 1972~75년 사이에 잠시 커졌다가 다시 거의 一定하게 되었다.

所得階層別로 분리시켜 살펴보면 이와 다른 樣相이 나타날지도 모르지만 全體가구 평균으로 볼 때는

\* 1980년 불변가격에 의한 G.N.P 증가율  
1972년 16.1% → 1973, 13.4%.  
1979년 21.2% →, 25.6%



(그림-3) 가사용 내구소비재의 소비증가율



(그림-4) 피복비에 대한 장신구비의 구성비 변화

裝身具에 대한 지출이 被服費의 지출증대를 유도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經濟에 대한 예견적 心理要因이 반영되는 지출항목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는 被服費 자체의 消費支出 構成費가 약 20년간 8~10%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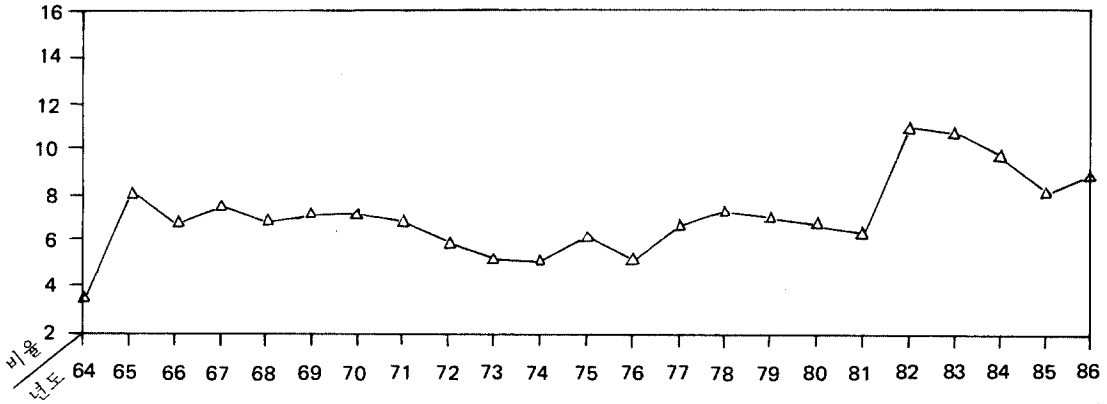
거의 일정한 것과 同一樣相을 보이고 있다.

“피복비는 소득의 증가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다”고 한 Engel의 정의가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로 확인된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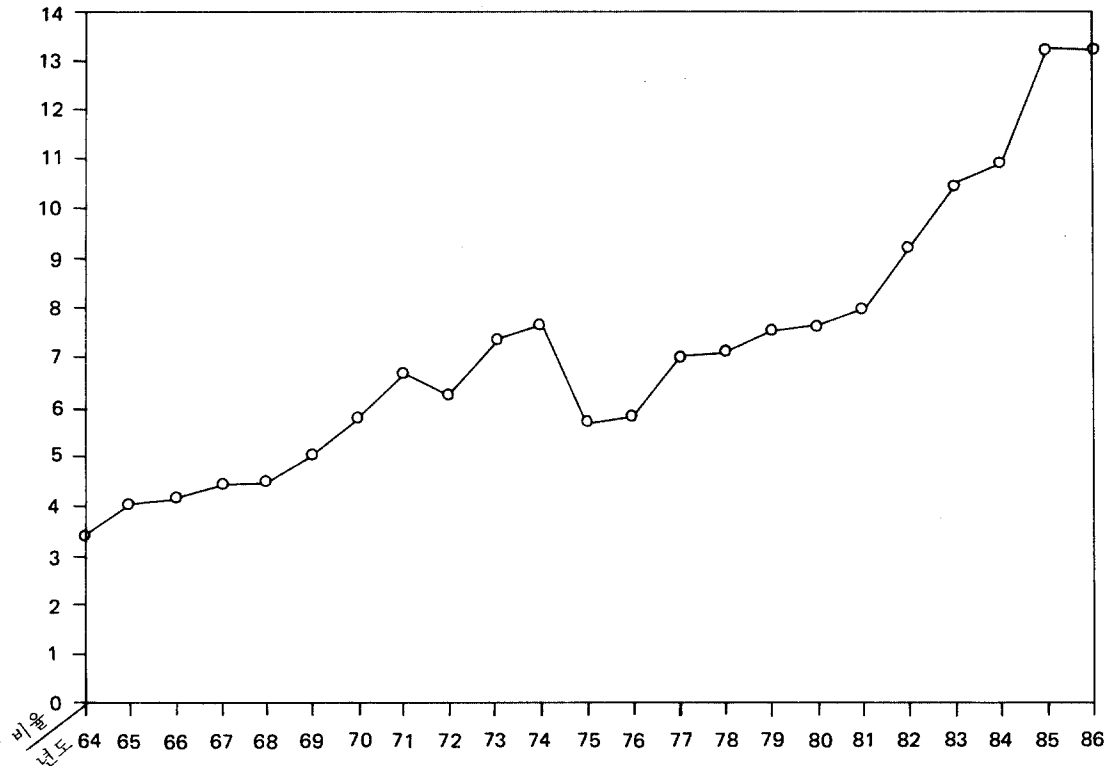
5. 雜費 內의 選擇性 消費支出의 變化

앞장에서 밝혔듯이 1981년까지 都市家計年報에서 雜費로 분류된 비목은 의료, 미용위생, 교통통신, 교

육독서, 취미오락, 기타소비지출 등인데 이들 비목이 모두 약간은 選擇性 消費支出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그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되는 취미오락비만을 선택하여 그 構成比 變化를 살펴보았다.



(그림-5) 잡비에 대한 취미오락비의 구성비 변화



(그림-6) 外食 및 가공식품의 구성비 변화

〈표 2〉과 (그림 5)를 보면 잡비 중 취미오락비의 구성비율은 1965~1981년까지 거의 일정하다가 82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다시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81년까지의 분류방식에 의하면 雜費속에 교육, 위생, 통신 등의 오늘날 생활 필수비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總消費支出에 대한 雜費의 構成比는 1963년 14.47%에서 86년에는 40.2%로 크게 증대되었다.

崔恩淑(1986)의 家計消費支出의 構造變化에 의하면 82년 이후의 분류방식에 의한 도시 근로자 가계의 잡비구성비는 1964년 12.4%에서 82년 24.7%로 점차 증가하였다<sup>17)</sup>.

그러므로 약 20년 간 家計의 消費支出에서 雜費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으며 食品費 支出「패턴」과 함께 全體 消費支出「패턴」을 變化시킨 중요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볼 때 비록 잡비의 選擇性 支出 構成費는 큰 변화가 없다하더라도 雜費 자체의 規模

가 확대됨으로 인하여 취미오락비의 實誌出額규모도 굉장히 늘어났음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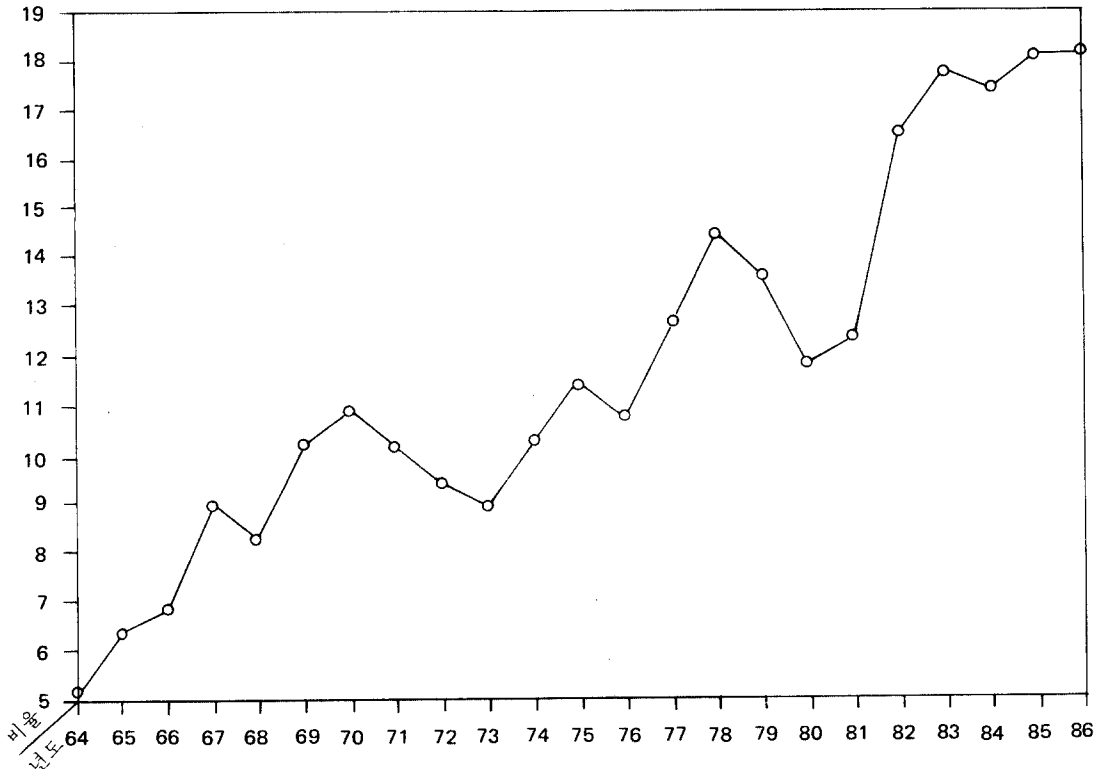
### 5. I.P.P.소비「패턴」에의 同調度

〈표 2〉에서 被服費 중 직물류의 構成比는 1975년 7.68%이던 것이 큰 폭으로 줄어 1986년 2.47%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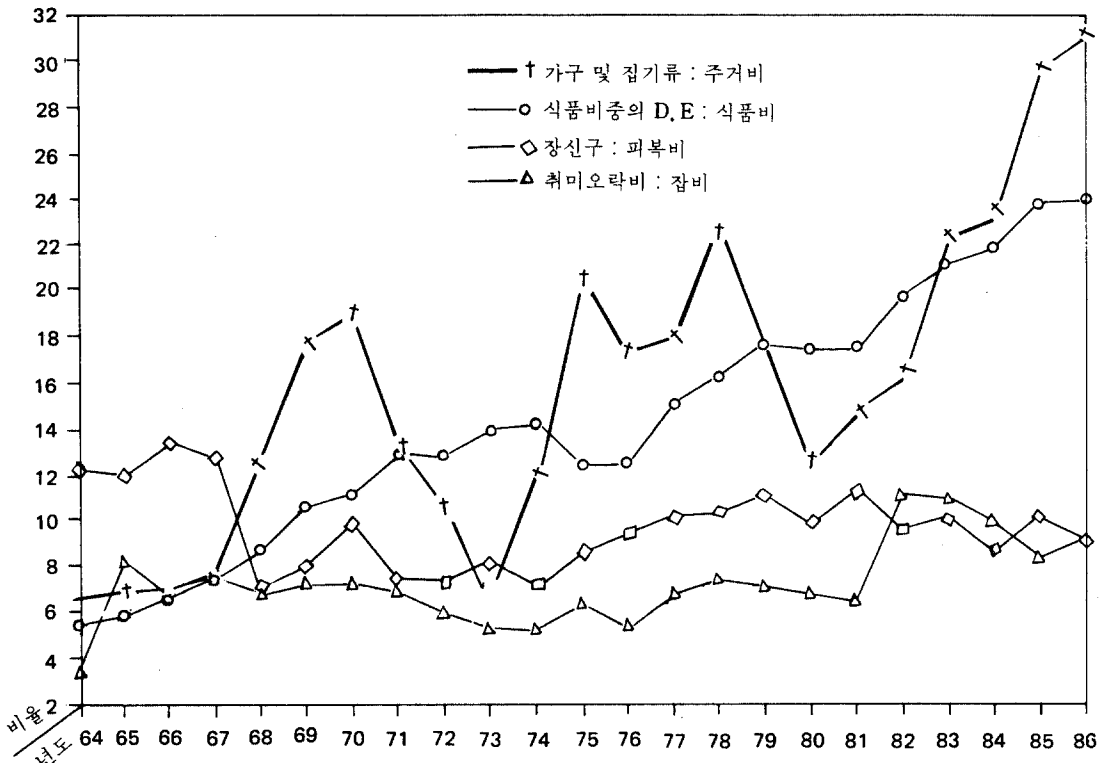
(그림 6)에서 外食과 加工食品의 構成比는 1975년에 다소 저하되었으나 그 후 점차 큰 폭으로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3)에서 耐久消費財의 家計支出 構成比 역시 전체적으로 크게 신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以上の 資料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示唆하고 있다.

첫째, 직물류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衣類의 消費活動 側面으로 볼 때 家庭에서의 노작활동이 줄어드는 대신 完制品의 市場購入이 늘어남을 의미하고 있다.



(그림-7) 총 소비지출에 대한 총선택 소비지출의 변화



[그림-8] 구성비 변화에 대한 비교.

둘째, 外食과 加工食品의 使用이 커졌다는 것은 食生活에서의 人的 活動이 市場의 商品으로 代替되었음을 의미하고있다.

세째, 耐久消費財는 주로 住居 및 家庭管理상 家事勞動을 경감시켜주고 시간을 절약해주는 제품들과 T.V., Radio, Video 등 현대적인 리크레이션 용품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住生活에서의 家事勞動을 機械에 의존하여 행하는 부분이 증대되었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餘暇時間이 마을단위의 共同놀이 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러한 고도의 기술적 리크레이션 용품의 등장으로 점차 개인~가정단위의 消費活動으로 變化되었음을 意味하고있다.

이와 같은 제반 현상들은 經濟의 發展過程에서 급속히 進行된 都市化, 核家族化, 그리고 극도로 組織化된 社會體系등으로 인하여 便宜主義의 價值指向性이 만연한 데<sup>18)</sup> 그 原因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商品

의 消費도 시간 절약형 商品을 선호하는 方向으로 전개되며 商品의 활용방법도 외부의 자극을 차단시키려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Nicosia는 소비가 社會文化的 價值, 制度, 規範의 작용을 받아 形成된다고 하였다<sup>19)</sup>.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소비「패턴」도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個別的, 私的, 受動的으로 變化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方向으로 進行될 것으로 예측된다.

#### IV. 結論 및 提言

1964년부터 1986년까지 약 20여년 간에 걸친 總家計支出 중 選擇性 消費支出의 構成比 變化를, 都市家計年報(서울의 월 평균 소비지출)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2. 住居費 가운데 選擇性 消費支出을 이루는 家具 및 什器類의 構成比는 經濟에 대한 心理的 期待值을 반영하는 景氣指標의 역할을 하였다.

3. 被服費의 選擇性 消費支出 構成比는 큰 變化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물류의 지출비율이 1975년 이후 큰 폭으로 계속 감소되었다. 1986년 직물류의 消費構成比는 2.47%에 불과하므로 衣服消費「패턴」은 市場 依存的 完制品 消費「패턴」으로 바뀌었다.

4. 雜費 중 選擇性 消費支出의 構成費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家計消費支出 중 雜費 자체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취미 오락 등의 여가활동 비용은 부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消費活動에서 여가활동의 비중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5. 總 消費支出 중 總 選擇性 消費支出의 構成比 [그림-7]는 住居費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景氣指標을 반영하는 가운데 증가하고 있다.

1973년과 80년의 실제 景氣後退보다 더큰 비율로 構成比가 감소되었다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選擇性 消費支出의 크기는 經濟에 대한 期待를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 G. Katona의 주장을 실증해준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반 상황을 現代社會의 社會, 文化的 特性에 연관시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選擇性 消費支出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를 유도하는 媒介變數인 欲求<sup>19)</sup>의 작용이 증대됨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사회는 大量生産 方式이 주종을 이루므로 消費者單位가 느끼는 相異한 欲求를 생산조직체가 찾아내다기 보다는 마케팅시스템을 작동시켜 社會적으로 조장된 欲求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 家族制度 면으로 볼 때 產業構造가 高度化되고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핵가족화 추세가 가속됨에 따라 하나의 제품을 群集의 使用하기보다는 個別的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띄게 되었다. 또한 리크리에이션으로 이용되는 시청각기재나 공공 시설물 등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公的~群集의 活用을 배제하고 私的, 個別的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셋째, 產業社會에서 時間에 대한 價値의 비중이 커지게 됨에 따라 시간절약형상품을 選好하는 것과 더불어 便宜主義의 價値指向性이 상호작용하여 모든 消費活動에서 人的 參與度를 극히 制限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消費「패턴」이 이와 같이 변화되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加工食品과 耐久消費財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製品의 生産과 消費過程에서 불필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다.

1. 식품비 가운데 選擇性 消費支出의 比重이 經濟의 發展에 비례하여 계속증가하고있는 반면 이들 選擇性 消費支出을 構成하고있는 청량음료, 주류, 외식, 가공식품의 所得彈性值가 계속 감소되고 있다. 또한 주곡의 彈性值는 증가하면서도 그것의 지출비율은 계속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食生活의 소비「패턴」이 主穀依存形態에서 外食 또는 加工食品 活用이 普遍化된 形態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요한 欲求가 社會적으로 조장되지 않도록하는 정부의 政策的 배려 및 정확한 消費者情報體系의 확립 그리고 消費者의 價値觀定立에 대한 教育이 크게 요청된다.

本 研究는 단지 서울의 家計支出 構成比만을 分析한 것이므로 이것을 우리나라 전가구로 一般化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이차 資料의 利用과 함께 家計의 消費「패턴」에 대한 實證調査가 이루어진다면 여러가지 背景變數에 따른 소비「패턴」이 확실하게 糾明될 수 있을 것이며, 그 結果는 細分된 消費者教育과 政策을 세우고 수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安承喆, 우리나라의 消費選好變動에 관한 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86, p 18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함.
- 2) Samuelson, P.A., "Some Implications of Linearity",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15, 1947~48, pp. 88~90  
Debreu, G., Theory of Value, New York ;

- John Wiley and Sons Inc, 1973.
- 3) Katona, George (1975), *Psychological Economics*, New York: Elsevier.
  - 4) 崔恩淑(1986), 家計消費支出의 構造變化와 決定要因分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Katona, G. (1975), 전제서.
  - 6) Webster, F.E., *Social Aspects of Market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4.
  - 7) Robertson, T.S., "Consumer Behavior;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 *Managerial Analysis in Marketing*, Glenview, Illinois; Cott, Foresman, 1970.
  - Tucker, W.T., *The Social Context of Economic Behavior*, N.Y. Holt: Reinhart and Winston, 1964
  - 8) Firat, A.F. and N. Dholakia, "Consumption Patterns and macromarketing: A Radical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1977.
  - 9) Luthans, F., *Organizational Behavior*, McGraw-Hill (Fourth ed), 1985
  - 10) Galbraith, J.Y., *The Affluent Society*, NY: Mentor, 1969.
  - 11) Tucker, W.T., *The Social Context of Economic Behavior*, N.Y.: Holt Reinhart and Winston, 1964.
  - 12) Nicosia, F and R.N. Mayer, "Toward a Sociology of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3, September, 1976.
  - 13) 都市家計年報(1964~1986), 경제기획원.
  - 14) 김미향, "식료품 소비구조의 분석 (1975~1985)" 대한가정학회지 제26권 1호 1988, 3.
  - 15) 趙淳, 經濟學 原論, 서울: 法文社, 1987, 5th ed, p71
  - 16) 李基榮, 家社勞動의 商品代替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17) 崔恩淑, 家計消費支出의 構造變化와 決定要因分析,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18) 李相周, "解放40年: 價値意識의 變化와 展望", 價値意識의 變化와 展望, 서울대학교 社會科學研究所 서울대학교 出版部, 1986.
  - 19) Nicosia, F and T.H. Witkowski, "The Need for a Sociology of Consumption", *Broadening the Concept of Consumer Behavior*, Atlanta: Consumer Research association, 1975.
  - 20) 消費者 態度動向, 全國經濟人聯合會, 1987.
  - 21) 貯蓄市場調查, 韓國銀行
  - 22) 李啓植, "都市家計의 貯蓄行態分析", 韓國開發研究. 겨울호, 1986.
  - 23) 朴明姬, 全都市 근로자 가구의 所得構造變動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3.
  - 24) 李基春, 家庭經濟學, 敎文社, 1986.
  - 25) Solomon, M.R., "The Role of Products as Social Stimuli: A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0, December, 1983.